



성인 전염병의 주 사망원인

결핵은 매년 다른 모든 전염병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에이즈, 설사,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모든 열대성 질환을 합친 사망자 수보다도 많다. 질병역사상 일반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 한 가지 질환으로 그렇게 많이 사망한 예는 여태까지 없었다.

매해 3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5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찬 체육경기장을 상상해 보라. 그만한 숫자의 환자가 매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장 입장료보다 싼 값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들의 죽음은 막을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결핵환자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핵사망의 95%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채로 죽어 나가고 있다.

결핵은 치료에 의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사망하고 있는 성인사망 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핵사망의 80%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15~59세)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전까지 결핵이외의 위험을 지켜보고 있었

TB in industrialized nations has sparked a new awareness of the disease
 1985, reports have been documenting the rapid return of TB cases to industrializ-
 nations—prompting an awareness of the crisis in developing nations as well. Pri

다. 그들 생각에 결핵은 1950년대에 근절된 오래전에 잊혀진 질병으로 여겨졌었다. 실제로 결핵은 선진공업국에서는 거의 근절되다시피 됐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나아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이 헛되이 사망하고 있었다. 이제 결핵은 새롭고도 치명적인 모습으로 복수하듯이 선진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자나라로 결핵이 돌아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결핵환자수가 매년 6%씩 감소하고 있었는데 1985년에 제자리 결음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5년 이래 뉴욕에서는 결핵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는 1천5백만 명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나라에 결핵이 다시 돌아온 사실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만연과 결핵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결핵이 퍼지는 것을 도왔다.

게다가 빠르고 손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되고 인구이동과 이민이 많아지면서 결핵같은 전염병이 국경에서 멈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지구의 한쪽에서는 전염병을 근절하고 다른 곳에서는 만연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었다. 간단히 말한다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건분야의 위협적 존재인 결핵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면 선진공업국의 결핵관리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공업국들		
국가	증가율	기간
오스트리아	5%	1989-1990
덴마크	20%	1986-1992
아일랜드	9%	1988-1991
이탈리아	27%	1988-1992
네덜란드	19%	1987-1992
노르웨이	21%	1988-1991
스페인	28%	1990-1992
영국	5%	1987-1991
미국	20%	1985-1992

다제 내성 결핵

사람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2가지 이상의 주요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가 만연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환자의 치료가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결과로 약제내성균이 살아 남아 번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992년 뉴욕에서는 검사균주 중 3분의 1 이상이 한 가지 약제에 내성이 있었고, 거의 5분의 1 이상은 두 가지 주요약제인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에 내성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항결핵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W" 균주 같은 몇몇 내성균주가 최근 뉴욕시에서 100 예 이상이 발견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환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중 80% 가까이가 사망하였다. 사망예의 대

New information exists on the cost-effectiveness of TB control. Over the years, preparation for the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Invest in Health," has sparked an unprecedented amount of attention on the cost-effective

부분이 HIV 양성화
 하였으므로 실제 다
 재내성 결핵에 의한
 전반적인 사망률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전세계에서 실시
 되고 있는 많은 결핵
 관리정책에서 다재
 내성결핵의 확산을
 예방하는 안전방안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료
 가 부적절하고 불안
 전하기 때문에 실제
 로는 다재내성결핵
 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약제내성균주가
 퍼지게 되면 장차의
 세대에서는 결핵은
 치유할 수 없는 질환이 될 것이다.



▲결핵으로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슬픔에 잠긴 우간다의 한 아버지.

은 낮으나 결핵만연
 에 있어서 가장 급속
 히 증가하고 있는 요
 인의 하나가 되고 있
 다. 1990년에 결핵과
 HIV 이중감염자는
 전 결핵 예의 4%가
 된다. 앞으로 2000년
 에는 이런 이중감염
 자가 전 결핵의 거의
 7분의 1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결핵과 HIV 이중
 감염 만연은 이미 아
 프리카에서 진행중
 이며 그 영향이 엄청
 나다. 1980년대 말기
 이후 HIV에 이중감
 염된 결핵환자 발생

수가 잠비아에서는 거의 3배로 늘어났고
 말라위에서는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이중감염자에서의 결핵사망
 이 치솟고 있다. 아시아는 전세계 결핵감
 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HIV 감염
 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결핵과 HIV 이중감염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경계하여야 한다.

1990년에는 전 결핵환자의 1%만이 HIV
 감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
 나 오는 2000년에는 이 비율이 10%에 도
 달하게 될 전망이다. 卍

결핵과 HIV의 이중만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결핵관
 리자나 환자에게 악몽이 현실로 되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인구의 3분의 1
 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의 감염자는 결핵균을 방어하는 면역체
 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병하지는 않
 게 되어 있다. 그런데 HIV는 결핵균을 방
 어하는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현재 결핵과 HIV 이중감염자의 사망률
 이 전 결핵사망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